



“지리산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구례고등학교, 내 고장 사랑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 매진

내 고장을 사랑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전남 구례고등학교(교장 이영혜)의 지역 중심 고등학교의 교육활동이 주목 받고 있다. 40년 전통의 구례고등학교는 민족의 명산 지리산과 들이 맑은 섬진강 등 자연친화적인 주변 환경과 기숙형 고등학교로서 원거리 학생과 성취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실력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최상의 학습 환경을 자랑하며 명문고로 도약하고 있다.



이영혜 교장

방과후에는 의무강사를 초빙한 영, 수 특별 심화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탐구영역 선택 보충 수업, 맞춤형 인터넷 강의 수강, 모의고사 문제지 제공, 사설 모의고사 실시, 원어민 수업 및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CCAP(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me)' 등으로 학업의 성취도를 높이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돕고 있다. 또한,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정독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시설과 최고의 면학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분야의 교내 경시대회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의 기쁨과 진로 선택을 돕고 있다. 학생 스스로 자존감, 사회적 자아를 확립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는 명사 초청 강연, 인문학 버스투어 등을 통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형성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진로교육 또한 탁월하다. 희망 직업군을 조사하여 대교협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컨설팅과 1:1 맞춤형 진학상담을 실시하며, 대학교와 연계하여 멘토링 캠프, 대입 기술 면접 프로그램 운영, 눈썹지도, 직업전문인 초청 진로 특강, 희망직업 분야별 동아리 활동 등 진로와 연계한 더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 진로탐색 동아리, 예·체능 동아리, 봉사 동아리 등 4가지 계열의 동아리에 1인 2개 이상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생 개개인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하며 각자의 개성을 살려주는 열성 있는 선생님들과 탁월한 진로지도 시스템으로 학생을 모두는 만족한 결실을 맺고 있다.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구례고만의 진로지도 노하우를 자랑한다.

이영혜 교장은 “지역중심으로서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인재 육성을 하고 싶다”면서 “학력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섬진강 즐기탐방

인문학, 창의융합 아카데미 운영--미래 인재 육성

구례고등학교는 2015, 2016학년도에 전라남도교육청의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전남하이플리스 사업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융합강좌’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연중 인문학 아카데미를 2년간 운영 하고 있다.

곽노연 전 서울교육감, 객재구 시인, 박주용 전남대 교수, 임배 순천대 교수, 김정복 구례향교 장의,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한경민 농부, 최형준 전남대 교수, 류도향 전남대 교수, 최형준 전남대 교수, 김용근 동강대 교수 등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여 인문학 및 창의융합 강좌를 열고 소양을 쌓고 있다. 그리고 40명정도 구성된 인문학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문학 기행, 사재중영 인문학 연세방, 송년 희망 나무 꾸미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구례 지역의 젊고 ‘스마트한’ 환경인 농부를 초청한 강좌에 참석했던 학생들은 이번 강좌가 대부분 참신하고 특별했다고 평가했다. 2학년 고교2 학생은 “살의 기로에서 특별한 선택을 하고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웠고, 나의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2학년 원선재 학생 역시 “만나서 차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라며, “실제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이 궁금하다”고 했다. 이 공감증은 TV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사회에 대한 과학적 전망과 예측은 개인의 삶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며, 이런 변화를 읽어 가며 당당히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을 주문하는 그의 이야기가 목격된 울림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국립생태원(총장자천)에서는 ‘2016학년도 2학년 진로체험활동 및 창의융합강좌’를 열었다. 국립생태원의 예코리움을 방문하여 진로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이어 오우에는 최재천 교수의 창의융합강좌를 배워주어 학생들 자신의 삶의 진로를 결정하고 인생의 행보를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도 했다.

애함성을 기르는 향토사찰 활동 전개

구례고등학교는 민족의 명산 지리산과 청정한 섬진강 등 자연친화적인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더 더욱 지역을 사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전개하고 있다.

○ 지리산 등반대회

내 고장 자연탐사 활동인 지리산 등반대회는 매년 열리고 있다. 우리고장의 영산인 지리산 피아골, 노고단 등을 등반하며 주변의 환경 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하여 등산객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기도 하였다. 등반대회는 사진 콘테스트와 소감문 쓰기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등반대회는 학생들에게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게 하며, 원대한 포부를 품고 진로·진학을 위한 노력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3학년 오은주 학생은 “가을 지리산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다”며 “구례에서 태어나 자라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1학년 김효진 학생은 “그동안 공부하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확 풀렸다”며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준 학교가 고맙다”며 활짝 웃었다.

○ 섬진강 들쭉기 탐방

우리나라의 5대강 중 국내 유일의 청정하천인 섬진강변 토지면 간전교에서 피아골 나무터에 이르는 8Km 구간에서 매년 섬진강 들쭉기 탐방 행사를 실시한다.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산하의 풍경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함성을 기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친 심신을 정화하여 더욱 더 학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된다. 섬진강 들쭉기 탐방은 강의 물살은 약하지더 전정형

인 한국의 강촌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다. 또한 중간-중간의 모래톱에서 이루어지는 휴식과 게임은 급우들과의 신뢰를 쌓고 의기투합하여 공부할 수 있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행사에 참여한 2학년 김민수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노를 저으며 물살을 가르는데 기분에 그간의 스트레스가 확 풀렸다”고 했으며, 또 3학년 한지연 학생은 “스릴과 긴장감을 만끽할 수 있었다.”며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여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지리산애(愛)’ 봉사활동

지역 봉사 동아리 ‘지리산애(愛)’가 매월 1회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지리산애(愛)’는 우리 고장 구례의 지리산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천하며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기 위해 봉사학습(기숙사) 학생으로 구성된 지역 봉사동아리이다.

봉사활동은 미래세대 환경리더가 될 지리산국립공원 주니어래인저 활동을 겸한다. 지리산국립공원 주니어래인저는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체험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생태환경프로그램 운영과 사설 모니터링, 국립공원 홍보활동 및 환경보전 캠페인 활동, 외부 청소년 환경단체와 교류 등의 활동도 한다.

봉사활동은 노고단 탐방로를 정화, 외래종 식물을 제거 활동,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 실습, 화염사 일대일 잡초 제거 등 환경 정화 활동, 노고단 대피소 1박2일 체험 등을 실시했다.



▲ 학교전경